

소유 대신 공유... 나눔카 3배, 따릉이 32배 '이용자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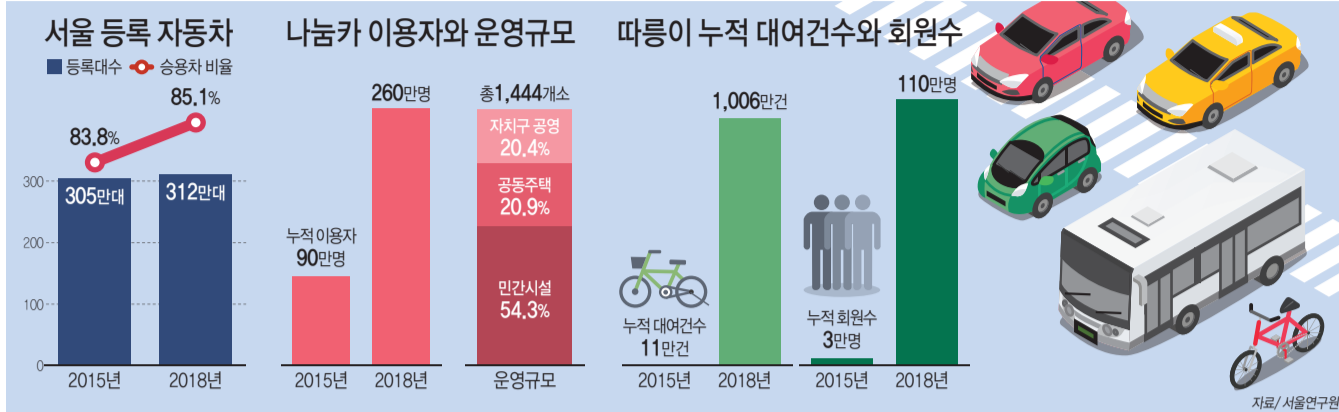
서울시 교통수단변화

서울연구원 자동차 등록건 감소세
자전거 도로 3년 동안 17.6% 증가
자전거길 도로변 70%... 안전지적

서울에 등록된 차량이 최근 3년 새
약 3% 증가한 반면 나눔카 이용자는
2.9배, 따릉이 회원수는 32배 폭증하면
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변
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14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의 자
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 305만6588대
에서 2018년 312만4651대로 6만8063대
증가했다. 지난 2012~2015년 8만7404
대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약 2만대 줄었
다.

차량 소유는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공
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은 많아졌
다. 공유자동차인 나눔카 사용자는



2015년 89만7662명에서 2018년 259만
8143명으로 2.89배 늘었다.

운영 규모별(2018년 기준)로 보면 민
간시설이 784개소(54.3%)로 가장 많았
다. 이어 공동주택 302개소(20.9%), 자
치구 공영 294개소(20.4%), 서울시 공
영 64개소(4.4%) 순이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수는 2015년
3만4000명에서 2018년 109만3000명으
로 3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따릉이 대
여 건수는 11만4000건에서 1006만2000

건으로 88배 늘었다.

자전거 교통 인프라도 확충됐다. 자
전거 도로는 지난 3년 동안 17.6% 증가
했다. 서울의 자전거 도로 길이는 2015
년 779km에서 2018년 916km로 137k
m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도로변이 639km로
전체의 69.8%에 달했다. 하천변은
263.7km(28.8%), 교량은 7.3km
(0.8%), 공원이 6km(0.7%)로 뒤를 이
었다.

자전거 길 대부분이 도로변에 깔려
있다 보니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
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5~2017년 서울 시내에서는
총 1만555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
생해 1만1190명이 다치고 81명이 숨졌
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자전거 대 자동
차 사고'가 7984건으로 1위를 차지했
다. 이어 '자전거 대 사람 사고' 1358건,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1082건 순이었

다. 전체 사망자의 81.5%(66명)는 자동
차와 사고가 난 경우였다.

일각에서는 도로에 더부살이하는 자
전거 도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는 2018년 4월 오직 자전거만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통했다
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전거 길을 분리
대 없이 도로 끝에 색깔로만 표시해놔
택배 차량이나 택시 등 차들이 침범, 자
전거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았
다.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시는 "자체 조사한 종로 자전거
도로 이용자 현황은 개통 직후인 2018
년 4월 일주일간 2560명에서 개통 후 1
년 시점인 작년 4월 일주일간 4867명으
로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자전
거 통행 안전확보와 주변 상인 주차문
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설 명절을 앞둔 최고의선물 상주꽃감.

임금님께 진상된 상주꽃감... 설 선물로 '딱'

일반 감에 비해 당도 4배 이상

꽃감 철이 돌아왔다.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용과 차례상에
올릴 차례용품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
이 꽃감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주는 대
표적인 꽃감 주산지다. 생산량이 전국
물량의 60%에 육박할 정도다. 맛과 품
질에서도 정평이 나 있다.

상주꽃감의 우수성은 역사적으로 확
인된다. 조선 세종실록, 예종실록에 주
요 공물로 상주 꽃감을 임금에게 진상
했다는 기록이 있다.

상주 꽃감은 원료 감부터 타 지역산

과 차별화된다. 산림청 품종등록이 되
어 있는 상주동시가 원재료다. 꽃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 적당한
과육밀도, 껍질 좋은 모양, 매달기 좋은
감꼭지 등이 있어야 하는데 상주동시는
이런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상주동시는 일반 감에 비해 당도는 4
배, 비타민A는 7배, 비타민C는 1.5배가
 많다. 원료 감이 우수하다 보니 꽃감의
효능도 뛰어나다. 상주 꽃감에는 100g
당 에너지 216kcal, 탄수화물 중 당질
45g, 섬유 3.0g, 비타민A 7,483IU, 비
타민C 45mg 등이 함유되어 있다

/경북=김홍기 기자 gi2136@

“2032년 올림픽 위해 군사훈련 잠정 중단해야”

(한·미·북)

박원순 '평화 향한 서울의 전진' 연설 대북 제재완화·방위비 조정 주장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에서 미국
정부에 유화적 대북 제재완화를 제시했
다.

서울시는 14일 박원순 시장이 외교·
안보 분야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미
국외교협회(CFR) 초청으로 좌담회에
참석해 '평화를 향한 서울의 전진'을 주
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한·미·북의 잠정적 군사훈
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 방위비 분담
금의 합리적 조정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반
도 일대에서 북한과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13일 오후 2시 30분(현지 시간)
외교·안보 분야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미국
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평화를 향
한 서울의 전진'을 주제로 연설했다. /서울시

그는 "이런 평화의 기초 위에 남북 단
일팀으로 구성된 선수단이 도쿄 올림픽
에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협력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제재는 수단일 뿐 목적이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요청을 받고 100만달
러를 공여했는데 WFP 계좌로 송금하
려고 하니 미국의 대북 제재와 세컨더
리 보이콧(제3차 제재)을 우려하는 국
내 은행들이 송금을 거부했다"고 밝혔
다.

이어 "인도적 지원, 스포츠 교류, 역
사(공동)발굴 등 어느 것 하나 발목 잡
히지 않는 것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제재의 한계 속에 놓인 민간 교류의 어
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
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시장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언
급했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는 한국 국
민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요인
이다"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북한의
군사 행동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중
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전
략적 이해에도 부합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기자

유령공간서 드라마·뮤비 무대로... 다채롭게 변하는 '서울 지하철'

2019년 지하철역 내 촬영 336건
녹사평역 공공예술정원 개장 인기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인데 왜 우리
는 갈라서야 하나~'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
수 유산슬이 합정역을 소재로 다룬 노
래를 발표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
루 75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이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울 지하철역 내부에서는 드라
마, 다큐멘터리, 예능 등 각종 촬영이
총 336건 이뤄졌다.

촬영장소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6

호선 녹사평역(21건)이었다. 왕십리역
(12건), 신설동역(10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녹사평역에 공공예술정원이 개장하면
서 촬영 장소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신설동역에는 드라마 '아테네: 전쟁
의 여신'과 EXO, TWICE의 뮤직비디
오 촬영지로 유명한 '유령 승강장'이 있
다.

이러한 유령 공간은 2·6호선 신당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 7호선 신풍역·논
현역에도 있다. 공사는 신당역과 신풍
역을 신설동역처럼 다시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



신당역 유령 공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안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면
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비영리 영상물 촬영은 무료지만 영
화, 드라마, 광고 등 영리 영상물은 촬
영 수수료를 내야 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6 | 해질 / 17:37

1월 15일 (수)
음력 : 12월 21일

수도권 날씨
-5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11/2
동두천 -9/3
가평 -9/3
파주 -6/3
서울 -5/2
양평 -6/3
인천 -4/1
수원 -3/3
용인 -3/3
평택 -7/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